

안녕하십니까. 영남대학교 신소재공학부 20학번 김단아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본 취업 후기를 이렇게 직접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현재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신 많은 분들께 제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저의 채용 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저는 2023 상반기 인턴 전형에 합격하였고, 이후 전환형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공채와는 전형이 조금 다릅니다. 인턴에 합격하면, 정규직 전환율이 높기 때문에 4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이신 분들은 상반기 인턴에 지원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스펙 >

- 학점

제 전체 학점은 4.16이고 전공 학점은 4.12입니다. 인턴 동기들을 보면 4점대가 안 넘은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다들 학점이 다들 우수합니다.. 그래서 학점은 좋게 받을수록 취업 시장에서 매우 유리한 것 같습니다.

- 어학 성적

어학 성적은 토익 스피킹 level 7(AL)을 취득했고, 토익이나 토플 등 다른 어학 성적은 따로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입사를 하고 난 뒤 오픽 성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오픽을 취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스 성적은 AL을 한 단계 낮은 점수인 IH로 취급합니다.)

- 대내외활동

지원서에 적은 대내외 활동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부 주관 커리어 맵 만들기 프로그램 우수상
- 삼성전기 ESG 공모전 참여
- 탄소 중립 아이디어 경진대회 참여
- 교내 동아리
- 과 학술 동아리
- 아르바이트

이 같은 활동들은 누구나 대학생 생활을 하면서 만들 수 있는 활동들입니다. 어울림이나 영대 홈페이지에 자주 들어가시면 저보다도 훨씬 많은 활동들을 쌓아나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자소서, 공모전에 참여를 했지만 수상을 하지 못한 활동들도 기재를 했는데, 어떤 점들을 배웠는지 어떻게 성장해나갔는지를 어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직무와 관련도가 떨어지고 어필할 수 있는 키워드가 없는 활동들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면접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내외 활동을 선정할 때는 수상과 별개로 이러한 활동들에서 어떤 점을 배웠는지를 잘 파악

하고 지원서나 면접에 녹여낼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자소서 >

저는 1,2학년 때부터 어울림을 통해 여러 강의를 수강하고 진로 상담 및 취업 멘토링을 꾸준히 받았습니다. 취업 멘토링을 받으며 삼성전기라는 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삼성전기에서 요구하는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했습니다.

3학년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시작하였고, 취업 상담을 꾸준히 받으며 삼성전기 상반기 인턴에 지원하기 위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며 느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험 정리

경험 정리는 사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무렵부터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1학년 때부터 작성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세세히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험 정리를 할 때 전공 혹은 교양에서 팀 프로젝트를 한 경험, 실험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 동아리에서 한 활동, 여행을 다녀온 내용 등 어떤 것도 좋으니 일단 생각 나는대로 경험을 모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공모전에 참여했지만, 수상을 못한 경험도 일단 경험 정리를 할 때 모두 작성했습니다. 아직 스펙이 부족한 것 같아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이 꺼려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세세한 것까지 경험 정리를 하다보면 생각보다 많은 내용을 적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험 수업이나 전공 수업 팀 프로젝트로도 충분히 많은 내용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험 정리를 하고 취업 상담을 가시면, 상담 선생님들께서 각 경험을 어떤 키워드로 연결할 수 있을지 양식을 공유해주십니다. (예를 들면 oo 공모전에서 수상을 한 경험은 '소통'과 '협동심'의 키워드로 연결, oo 동아리에서 기획자로 활동한 경험은 '리더쉽'과 '성취'의 키워드로 연결하는 등 혹은 여러 키워드 중 본인의 경험과 연관 지을 수 있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음) 이러한 도움을 받으시면 좀 더 쉽게 전체적인 틀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삼성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며, 문항별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고민하며 알아낸 팁들입니다.

1) 지원 동기 (삼성 자기소개서 1번 질문)

두괄식이 중요합니다. 저는 왜 이 기업에 지원했는지, 이 기업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인지를 간결하게 먼저 적은 후 자세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oo 전공 지식과 역량을 바탕으로, oo개발에 힘쓰고자 지원을 했습니다와 같은 형식으로 첫 줄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다음 문단에서는 왜 이 기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이 기업이 다른 기업과는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지, 나의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자세히 작성을 했습니다.

지원 동기를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 분석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기업 분석이 여러 사이트에 잘 나와 있지만, 표면적인 자료일 수 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저는 네이버 -> 증권 -> 삼성전기 검색 -> 뉴스.공시에서 기업 분석을 했습니다. 기

사가 굉장히 많아서 막막하실 수 있는데, 여러 개 클릭하다보면 같은 내용의 기사이고, 어떤 점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찾은 정보를 자기소개서에 적절히 녹여 작성했습니다.

2) 성장 과정 (삼성 자기소개서 2번 질문)

저는 실제로 인턴 면접 때 자기소개서 2번에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본인을 드러낼 수 있는 솔직한 경험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공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도 좋지만, 자칫 프로젝트 소개서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을 작성할 때는 본인이 어떤 기여를 했고 어떤 점을 느꼈는지에 중점을 맞춰 쓰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공에 대한 내용보다는, 어렸을 적부터 가지고 있던 취미와 이를 병행하며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작성했습니다. 2번 문항과 같은 경험을 묻는 질문은 실제로 이런 경험을 했는지 사실 여부를 물어보는 질문을 면접 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회 이슈 (삼성 자기소개서 3번 질문)

기업 홈페이지를 보시면 기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나, 경영 방법 등이 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된 이슈를 선택하여 3번 문항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 문항은 사회 이슈에 대한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생각을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이슈에 대해 본인이 생각한 점과 해결 방법 등에 대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적절한 사회 이슈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홈페이지, 사회 이슈 기사, 유튜브 등을 통해 다양한 조사를 했습니다.

4) 직무 경험 (삼성 자기소개서 4번 질문)

저는 현장 실습이나 외부 직무 관련 프로젝트를 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 전공 수업에서 배운 내용과 실험 수업에서 진행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을 했습니다. 세라믹 공정 실험과 6 시그마, 전자부품재료 등에서 배운 내용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배운 내용, 실습한 경험들로도 충분히 자기소개서를 풍부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항도 두괄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저는 저의 ~~역량을 바탕으로 oo 개발팀에 지원했습니다. 와 같이 한 문장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 후 자세한 내용을 풀어나갔습니다.

3월 중순에 상반기 채용 공고가 뜨기 때문에, 저는 3월에는 자소서를 마무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공고가 뜨면 '삼성 커리어스'에 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지원서에는 자소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닌, 수강 과목이나 여러 개인정보, 직무 경험 등에 대한 내용들도 새로 작성을 해야하기 때문에 공고가 뜨자마자 작성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GSAT >

저는 지원서를 제출하자마자 gsat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입문용으로 에듀윌 문제집을 풀었고

이후 해커스 파랑이와 하양이를 풀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에듀윌보다 파랑이 하양이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이후에는 렛유인에서 봉투 모의고사를 사서 풀었습니다. gsat는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기 때문에 온라인 모의 시험도 병행해서 풀었습니다. gsat 체감 난이도는 파랑이 하양이 보다는 쉬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gsat를 공부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문제 유형을 파악한다는 느낌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2. gsat는 수리 추리로 나뉘고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는 편이기 때문에 각 유형을 푸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어떤 문제가 약한지를 체크했습니다.
3. 약한 문제를 파악한 후 문제 풀이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탐색하고 그래도 안 풀리는 문제는 과감히 버렸습니다.
4. 이후 타이머를 맞춰놓고 문제를 계속해서 풀었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모의고사 2회를 풀고 오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온라인으로 푸는 것은 문제집으로 푸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시험에 임박했을 때는 온라인 모의고사로만 시험을 쳤습니다. 문제집으로 풀 때에도 연습장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계속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음에도,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성적이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추리보다는 항상 수리가 성적이 안 나와서 매일 모의고사를 풀며 걱정만 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gsat 당일날은 시험 환경을 감독관이 검사하시고 무한 대기 끝에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문제 유형 중 처음 보는 것이 있어 당황을 하다가 수리는 6문제를 풀지 못하고 제출을 했습니다. 이후 긴장이 모두 풀려서 추리 문제는 편하게 다 풀었습니다.

gsat는 정답률을 보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를 찍는 것보다 빈칸으로 제출하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요즘 동기들과 GSAT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수리는 망하고 추리를 잘 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즉 수리와 추리 모두 커트라인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적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확실한 정보는 아니지만, 혹여 시험을 볼 때 수리가 망했다 하더라도 추리를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 면접 >

gsat를 치고 약 2~3주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gsat 결과가 나오고 하루 뒤에 면접 일정이 공지되는데, 저는 약 2주 뒤에 면접이었지만 3일 후에 바로 면접 일정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면접은 자기소개서 기반이기 때문에 예상 면접과 답변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gsat가 끝나고 바로 조금씩 해두는 편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gsat가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면접 준비를 안했는데, 합격 통보를 받고 2주의 시간 동안 면접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인턴 전형의 경우, 자소서 -> gsat는 공채와 동일하게 이뤄지지만 면접은 조금 다릅니다. 인턴은 직무 면접을 보지 않고 인성 면접만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소서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 질문을 한 문장 한 문장마다 만들고 답변을 준비했으며, 1분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는

일상 생활을 하면서도 중얼거리며 완벽히 만들어갔습니다. 어울림의 취업 상담과 모의 면접을 신청하여 3회 정도 모의 면접을 받았고, 피드백을 받으며 면접 태도나 시선 처리, 인사 방법 등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어갔습니다. 답변도 중요하지만 발음과 목소리 크기,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말하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제가 면접을 직접 보며 느낀 팁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컨디션 관리

: 오전 조 면접 시간은 새벽부터 집합하기 때문에, 전날부터 컨디션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저는 전날 숙소를 잡아두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아침도 꼭 드시고 가세요!

- 순발력

: 저는 예상 질문과 그 답변을 50개가 넘도록 준비를 해 갔는데요, 이렇게 많은 답변을 준비해가면 다른 질문이더라도 여러 답변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적절한 답변을 하기 위한 순발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 시그널

: 제가 느낀 시그널은 면접관 분들의 표정입니다. 저는 상반기 인턴 면접과 하반기 전환형 면접 총 2번을 봤는데, 두 번의 삼성 면접을 보며 면접관분들의 표정이 시그널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발력 있는 답변과 면접관의 의도를 간파한 답변, 흥미로운 답변 등은 면접관 분들의 표정을 바뀌게 합니다.

< 마지막 전하고 싶은 말 >

인턴 전형에 최종 합격을 하게 되면 한 달간의 인턴 실습 기간을 가진 후, 하반기 공채가 뜰 때 공채 면접과 함께 전환형 면접을 봅니다. 자소서에는 기존에 제출한 것을 그대로 내고, gsat는 따로 보지 않습니다. 이후 전환형 면접에 합격을 하게 되면 건강검진 후 최종 합격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인턴 전형의 경우라서 일반 공채와는 면접 준비 방법이 조금 다르지만, 인턴은 인성 면접만 진행된다는 점에서 부담감을 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4-1학기에 재학 중이시라면, 인턴 지원을 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턴은 전환율이 높기 때문에 인턴에 합격하다면 좀 더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인턴 전형에 대한 정보는 어울림이나 취업처에서도 찾기가 힘듭니다. 저 또한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인턴 전형에 대한 정보를 더 얻고 싶으신 분들은 제게 연락해주시면 최대한 답변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좋은 결과가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세요.

제가 메일은 잘 안봐서, 카카오톡 아이디 dana2899로 연락주세요!